

곡성군청 김문정 볼링 2관왕

세계청소년선수권 여자부 개인전·개인종합 1위

한국 남녀 각각 미국·싱가포르 꺾고 단체전 우승

곡성군청 김문정(사진)이 2010 세계청소년볼링선수권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한국 볼링 청소년 대표팀은 대회 남녀 단체전에서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

남녀 대표팀은 대회 여섯째 날인 지난 달 31일 광란드 헬싱기에서 열린 단체전 결승에서 각각 미국과 싱가포르를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1일 대한볼링협회가 밝혔다.

홍해솔(한체대)과 김주영(한체대), 신승현(율구군청), 박종우(천안시청)가 조를 이룬 남자팀은 합계 892점으로 2위 미국(860점)을 32점 차이로 제압했다.

여자 대표팀도 김연주(단국대), 신보현



세계 청소년 볼링 선수권대회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며 한국은 지난 2008년 미국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대표팀은 개인종합 1~16위가 5관 3선승제로 일대일 승부를 펼치는 대회 마지막 종목 마스터즈만 남겨두고 있으며 김주영·박종우·신승현이 남자부에서, 김문정·김연주는 여자부에서 각각 4강에 진출해 메달을 노리고 있다.

이들은 대회 마지막 날인 이날 준결승에 출전해 추가 메달과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우승을 노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남자 50m권총 단체 한국신금

독일 세계사격선수권

남자 사격 선수들이 제50회 세계선수권대회 50m 권총 단체전에서 한국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내 오는 11월 광주에 아시안게임 전망을 밝혔다.

진종오(31·KT), 이대명(22·한국체대),

한승우(27·창원시청)가 짙은 한국은 31일(이하 한국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대회 첫날 남자 일반부 50m권총 단체전에서 1천686점을 합작, 2위 중국(1천681점)을 누르고 우승했다.

한국 남자 사격이 세계선수권대회 권총부문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대명과 진종오가 각각 565점과 562점

을, 한승우가 559점을 쏴 지난 4월 실업연맹 회장배 전국대회에서 경북체육회 사격팀이 세운 종전 한국기록(1천684점)까지 갈아치웠다.

4년 전 크로아티아 대회에서는 이 종목 노메달에 그친 한국은 남자 권총의 '쌍두마차'인 진종오, 이대명과 지난 6월 14년 만에 처음 태극마크를 단 대기민성형 한승우가 가세하며 이번 대회 첫 메달을 금빛으로 장식했다.

이들 트리오는 모두 개인전 예선을 통해 내달 1일 개인전 메달과 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후 첫 골이었다. 선제골을 내준 상무는 최성국과 정경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수원을 위협했지만 골문을 여는데 실패했다.

상무는 후반 7분 터키리그에서 2년 만에 진정으로 돌아온 수원 신영록에게 헤딩골을 허용하면서 결국 0-2로 패했다. 승점을 더하지 못한 상무는 11위로 순위가 한 단계 추락했다.

FC 서울은 제주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0으로 승리를 거두며 3위에서 선두로 올라섰다. 1위 탈환에 성공한 서울은 홈경기 10연승 행진과 함께 15개 팀 중 가장 먼저 승점 30점 고지를 밟았다.

한편 축구 대표팀 감독에 선임되면서 경남 지휘봉을 내려놓게 된 조광래 감독은 K-리그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조광래 감독이 이끄는 경남은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두 골을 몰아넣은 김인환의 활약에 힘입어 3-2 승리를 거뒀다.

22-21까지 리드를 지킨 한국은 종료 4



지난달 31일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여자주니어핸드볼선수권대회 3-4위전에서 한국의 남영신(왼쪽)이 몬테네그로 수비를 뚫고 슛을 하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한국 아쉬운 4위...이은비 MVP

3-4위전 몬테네그로에 23-24 패...노르웨이 우승

세계주니어여자핸드볼

한국의 20세 이하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제17회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아쉬운 4위에 그쳤다.

한국은 31일 성북구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3-4위 결정전에서 몬테네그로에 23-24로 패했다.

전반을 10-12로 뒤진 한국은 후반 들어서도 줄곧 끌려다녔다. 경기 종료 18분여를 남기고는 15-19까지 벌어지며 패색이 짙어졌다.

그러나 김선희와 조효비(이상 벽산건설)의 연속골로 주격을 시작한 한국은 17-20에서 정유리(대구시청), 이수연(한국체대), 유은희(벽산건설)가 연달아 네 골을 몰아치며 경기 종료 7분여 전에는 21-20으로 승부를 뒤집었다.

◇31일 전적 △3-4위 결정전 몬테네그로 24(12-10 12-13)23 한국 △결승전 노르웨이 30(14-11 16-10)21 러시아

/연합뉴스

분13초를 남기고부터 밀레나 네제비치에게 연달아 세 골을 허용해 22-24로 재역전을 허용했다. 종료 7초를 남기고 유은희가 한 골을 보탰으나 이미 승부는 결정이 난 뒤였다.

유은희가 10골, 이은비(부산시설관리공단)가 5골을 넣으며 분전한 한국은 2005년 체코 대회, 2008년 마케도니아 대회에서 연달아 3위를 차지한 데 이어 3회 연속 4강 진출에는 성공했으나 순위는 한 계단 내려선 4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어 열린 결승에서는 노르웨이가 러시아를 30-21로 대파하고 이 대회에서 처음 정상을 올렸다. 구소련 시절을 포함해 11번이나 우승했던 러시아는 2005년 체코 대회 이후 5년 만에 패권 탈환을 노렸으나 준우승에 그쳤다.

◇31일 전적 △3-4위 결정전 몬테네그로 24(12-10 12-13)23 한국 △결승전 노르웨이 30(14-11 16-10)21 러시아

/연합뉴스

두암초 정유리 2관왕

회장기약궁 20m·30m 우승

두암초 정유리가 전국초등학교양궁대회 2관왕에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이며 오는 11월 광주에 아시안게임 전망을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전남 뒷심 부족...포항과 2-2 무승부

프로축구 K-리그 15R 광주는 수원에 0-2 완패

광주 상무와 전남 드래곤즈가 주말 승리 신고에 실패했다.

전남 드래곤즈는 지난달 31일 광양전용구 장에서 열린 포항 스텔스와의 2010 K-리그 15라운드 경기에서 2점차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수원월드컵 경기장을 찾은 광주 상무는 수원 삼성과의 대결에서 0-2로 패해 승점추가에 실패했다.

전남의 뒷심이 아쉬웠다. 전반 7분 인디오의 골로 선취점을 올린 전남은 후반 8분 슈바의 추가골을 더해 2-0으로 앞서나갔다. 하지만 후반 14분 황진성이 퍼스트 퍼스를 받은 포항

의 공격수 설기현이 전남의 골망을 훔들었다. 이를 시즌 K-리그 무대로 돌아온 설기현의 두 경기 연속골이었다.

만회골을 내준 전남은 4분 뒤 다시 한 번 유망청년 등장골을 허용하면서 승리를 눈앞에 놓쳤다. 승점 1점을 보태 전남은 9위를 지키고 있다.

상무는 수원의 '이적생' 황재원·신영록·콤비의 활약에 0-2로 무릎을 꿇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수원의 득점포가 가동됐다. 전반 2분 양기훈이 차ول린 코너킥을 황재원이 헤딩골로 연결했다. 포항에서 수원으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황재원의 이적

의 공격수 설기현이 전남의 골망을 훔들었다. 이를 시즌 K-리그 무대로 돌아온 설기현의 두 경기 연속골이었다.

만회골을 내준 전남은 4분 뒤 다시 한 번 유망청년 등장골을 허용하면서 승리를 눈앞에 놓쳤다. 승점 1점을 보태 전남은 9위를 지키고 있다.

한편 축구 대표팀 감독에 선임되면서 경남 지휘봉을 내려놓게 된 조광래 감독은 K-리그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조광래 감독이 이끄는 경남은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두 골을 몰아넣은 김인환의 활약에 힘입어 3-2 승리를 거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8월 3일(화)

▲정다는 우리 산악회 경남 청룡산 청룡사 8월 3일(화) 7시 40분 구·해리파워 암출입구(서한고교, 은평원, 풀플러스 경유) ■다음카페: 청도군무리산악회

▲청주산악회 대회도 둔봉선수 월드컵 경기 8월 8일(화) 5시 30분 구·해리파워 암출입구(8시 10분 출발·원 8시 20분 출발) ■다음카페: 광주산악회

▲청주산행스카이 고성 우미산(남형리비하우스) 8월 8일(화) 8시 40분 구·해리파워 암출입구(8시 10분 출발·원 8시 20분 출발) ■다음카페: 광주산행스카이 T.011-634-0776

8월 4일(수)

▲광주청년산악회 경남 남해군 신금산 수목자 8월 4일(수) 7시 50분 구·해리파워 암출입구(8시 10분 출발·원 8시 20분 출발) ■다음카페: 광주청년산악회

8월 5일(목)

▲e-조은산악회 경북 경상남도 경주시 8월 5일(목) 7시 50분 구·해리파워 암출입구(8시 10분 출발·원 8시 20분 출발) ■다음카페: e-조은산악회

▲제주도립공원 청정 대연산 8월 5일(목) 6시 30분 구·해리파워 암출입구(8시 10분 출발·원 8시 20분 출발) ■다음카페: 제주도립공원 청정 대연산 T.010-4602-8818, 010-632-0827

8월 6일(금)

▲제주도립공원 청정 대연산 8월 6일(금) 6시 30분 구·해리파워 암출입구(8시 10분 출발·원 8시 20분 출발) ■다음카페: 제주도립공원 청정 대연산 T.010-741-2929

8월 7일(토)

▲제주도립공원 청정 대연산 8월 7일(토) 6시 30분 구·해리파워 암출입구(8시 10분 출발·원 8시 20분 출발) ■다음카페: 제주도립공원 청정 대연산 T.010-3608-4267, 010-9707-2614

8월 8일(일)

▲산마루신수회 구·해리파워 암출입구(8시 10분 출발·원 8시 20분 출발) ■다음카페: 산마루신수회

8월 9일(월)

▲제주도립공원 청정 대연산 8월 9일(월) 6시 30분 구·해리파워 암출입구(8시 10분 출발·원 8시 20분 출발) ■다음카페: 제주도립공원 청정 대연산 T.010-9601-3222, 010-2181

8월 10일(화)

▲제주도립공원 청정 대연산 8월 10일(화) 6시 30분 구·해리파워 암출입구(8시 10분 출발·원 8시 20분 출발) ■다음카페: 제주도립공원 청정 대연산 T.010-9786-5034, 010-9686-3700

8월 11일(수)

▲제주도립공원 청정 대연산 8월 11일(수) 6시 30분 구·해리파워 암출입구(8시 10분 출발·원 8시 20분 출발) ■다음카페: 제주도립공원 청정 대연산 T.010-9601-3222, 010-2181

8월 12일(목)

▲제주도립공원 청정 대연산 8월 12일(목) 6시 30분 구·해리파워 암출입구(8시 10분 출발·원 8시 20분 출발) ■다음카페: 제주도립공원 청정 대연산 T.010-9601-0091-0091

8월 13일(금)

▲제주도립공원 청정 대연산 8월 13일(금) 6시 30분 구·해리파워 암출입구(8시 10분 출발·원 8시 20분 출발) ■다음카페: 제주도립공원 청정 대연산 T.010-9601-0091-0091

8월 14일(토)

▲제주도립공원 청정 대연산 8월 14일(토) 6시 30분 구·해리파워 암출입구(8시 10분 출발·원 8시 20분 출발) ■다음카페: 제주도립공원 청정 대연산 T.010-9601-0091-0091

8월 15일(일)

▲제주도립공원 청정 대연산 8월 15일(일) 6시 30분 구·해리파워 암출입구(8시 10분 출발·원 8시 20분 출발) ■다음카페: 제주도립공원 청정 대연산 T.010-96